

일진다이아몬드지회 설립!



충북 음성에 새 식구 생겼다!

충북 음성에 위치한 일진다이아몬드에 금속노조의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일진다이아몬드 노동자 44명은 작년 12월 29일 총회를 통해 일진다이아몬드지회를 설립했고, 올해 1월 7일 현장에서 설립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일진다이아몬드지회는 1월 21일 지부 운영위를 통해 공식 승인됐다. 충북 음성에 외롭게 혼자 있던 코스파지회에 반가운 동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금동결, 상여금 축소 막아낸다!

일진다이아몬드는 공업용 합성 다이아몬드 소재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270여명의 생산직 노동자들이 근무한다. 회사는 상여금 600% 중 400%를 기본급으로 포함시키며 최저임금을 피해가는 꼼수를 부렸다. 결과적으로 사실상 임금동결이 몇 년째 이어진 상황이었다. 여기에 남은 200%의 상여금마저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노동자들에게 크게 다가왔다.

그런데 임금만 문제가 아니었다. 현장 통제가 비상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가장 단적인 예로, 출근하면 휴대폰을 모두 회사에 반납해서 보관함에 넣어야 한다. 얼마나 당연스럽게 이런 통제를 했는지, 이런 행위가 부당한지 못느끼는 노동자들도 있었다. 이런 현실이니,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회사에 반영될 리 없었다. 현장의 의견은 언제나 100% 묵살됐다. 이런 통제 속에서 노동자들의 울분이 쌓이고 쌓여, 결국 노동조합 설립으로 이어졌다. 270여명 중 250명 이상이 순식간에 가입했다.

노동조합 설립으로 완전히 뒤집었다!

지회 설립 이후 아침 선전전, 중식 조합원 교육 등을 이어갔다. 휴대폰 반납을 거부하는 투쟁도 벌였다. 사측은 허둥지둥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조합원들의 자신감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노동조합 설립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다. 부당한 대우를 하나 둘 바뀌어나가고 있고, 창구단일화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교섭도 열릴 예정이다. 이제는 우리 권리를 되찾는 일만 남았다.

2019년 임단투 시동!

지부가 23일(수) 노동의제발굴위(단협위)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9년 임단투 시동을 건다. 1월 8일~15일에 각 사업장으로 교섭요구 공문을 발송했고, 노동의제발굴위를 통해 2019년 요구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수노조 사업장과 투쟁사업장은 지회 상황에 따라 교섭에 대응한다.

작년, 지부는 지역 미조직노동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임단투를 고민하면서 사업장 임단투와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지역의제 투쟁을 함께 하고자 노력했다. 당장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사업장 담장을 넘어 지역 노동자들과 함께 하려는 소중한 노력이었다. 올해도 지역 노동의제를 발굴하고 투쟁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 주요 일정 *

☐ 현대성우메탈 임금체불

무혐의 규탄 기자회견

1/23(수) 10시, 충주 검찰청

☐ 노동의제발굴위 회의

1/23(수) 14시, 지부회의실

☐ 금속 신임 노안간부학교

1/25(금)~26(토) 전북 장수 한
국농업연수원